

2015

NOVEMBER

쉽과 새로운 시작의 11월

양곤, 산, 그 30일 이야기

JUN, KONI, J, YOUNG

목차

1. 우리들의 일상

- 아띠클럽
- Shan State
- 중간격려방문
- 특별한 일상
- YMCA, YWCA

2. 우리들의 소개

- 건강이 최고!!
- 나의 미얀마, 양곤은?
- 미얀마 2015 총선
- 못다한 사진전

3. 개인 에세이





1

우리들의 일상

아미클럽 1주년 기념 파티

기념 파티



2015년 11월 01일

우리들의 일상

- 01 아피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조금 불편해 보이는 이곳은 양곤 YMCA의 모든 음식이 만들어지는 주방. 밥을 좋아하는 우리 아피들에게는 이미 친숙한 곳이 되었지만 이곳을 처음 방문한 한 아피클럽 멤버는 "It's like a haunted place." (여기 꼭 유령의 집 같아.) 라는 짧은 감상평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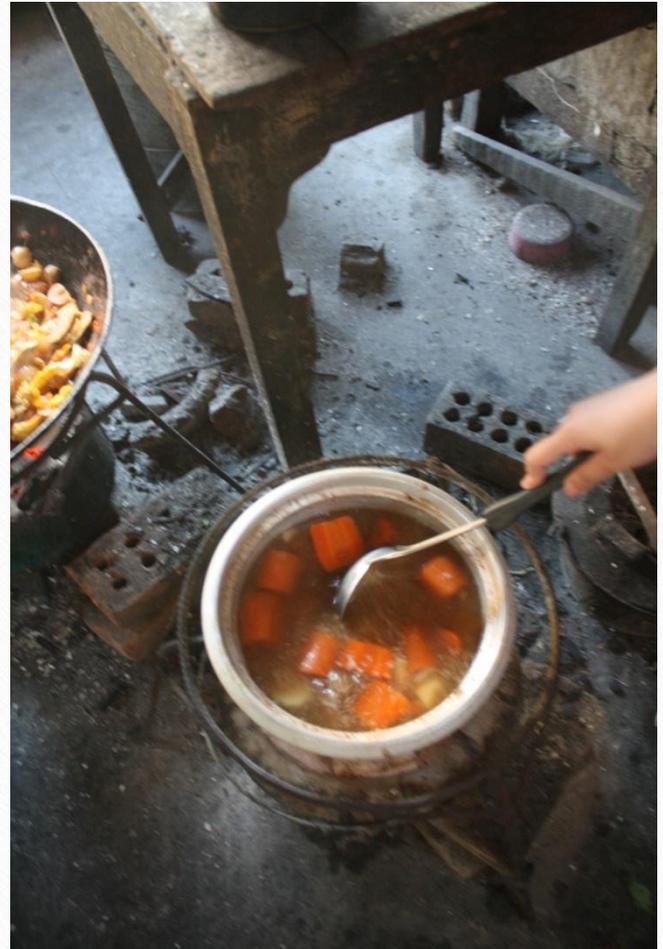
JKJY

마침 일요일이었던 11월 1일 우리는 아피클럽 1주년 기념 파티도 할 겸 한국음식을 함께 만들기로 했다. 전날 우리는 산드라 간사님과 마트에 가서 음식 재료를 모두 샀고(간사님은 만만치 않은 금액에 oh my goodness 를 연발하셨다.) 미리 고기를 한국에서 가져온 양념에 재어놓았다.

12. 13기에서의 경험 덕분에이었을까 주방에 도착해서 허둥지둥 대는 우리 아피들과 달리 아피클럽 멤버들은 알아서 솜을 피우고 각자 재료손질을 시작하였다. 칼도 잘 못 잡는 어수룩한 우리들을 지켜보시던 도 누누트웨께서는 조금은 불안한 눈빛으로 이곳을 넘겨주시고는 나가셨다.

우리들의 일상

- 01 아띠클럽
- 02 중갑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 01 아띠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 01 아띠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MENU

- 칠리 페퍼 (*Chilly Pepper*) 페이스 트에 마리네이드 된 닭고기에 감자와 고구마를 곁들인 한국식 닭고기 커리.
- 특제 바비큐 소스에 절인 고기를 양파, 마늘, 당근과 함께 요리한 돼지고기 졸임.
- 100% 한국산 유기농 콩만 사용한 간장소스에 면과 각종 야채를 함께 볶은 한국식 파스타.
- 소프트 드링크 베이스에 수박, 파인애플 등 각종 제철 과일이 들어간 수제 칵테일.



우리들의 일상

JKJ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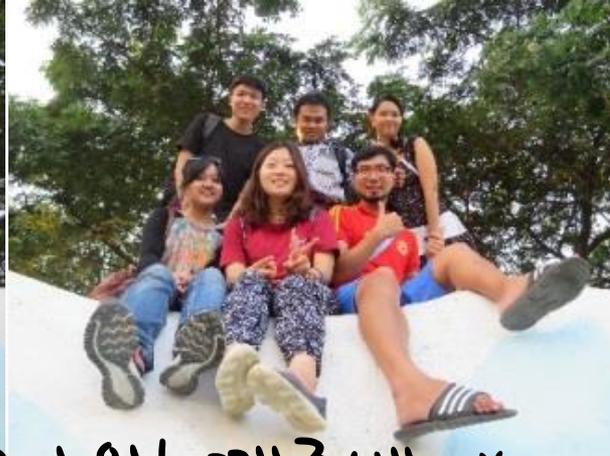
- 01 아띠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YANGON YMCA
ATTI CLUB
No.263, Mahabandoola Street,
Botataung Township, YGN
093.011.0044
099.7806.2043

11월1일 미얀마 양곤의 아띠클럽이 1주년을 맞았다. 닭갈비, 돼지갈비, 잡채, 화채 등을 만들어 먹고 한국에서 귀국단원 아띠들이 보내준 축하 메시지와 안부인사를 읽은 후 12기부터 13, 14기를 거친 아띠클럽 활동 동영상을 보며 소소한 파티를 마무리했다. 아띠클럽의 1주년은 최초 미얀마 라온아띠 기수였던 12기부터 1년 동안 쌓인 시간들의 결실이기 때문에 우리 아띠들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 그저 미얀마의 청년들을 만나고 싶어서 시작된 아띠클럽. 그런 우리들의 손을 잡고 1년 동안 함께해준 아띠클럽 멤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다시 한번 표한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 재주베-*

중간평가

아띠들은 잘 지내나요? 사실은 중간격려였던

- 01 아띠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2015년 11월 3~7일

- 01 아띠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11월 3일 박장동 총장님 도착!

미얀마의 첫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새로 울산Y 총장님이 되신 박장동 총장님은 이전 라온아띠 태국팀을 담당하셨다. 태국팀이 라온아띠 안에 오랜 시간 여러 기수를 거쳐가면서 이루어진 상황들과 현재 미얀마 팀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셨다.



11월4일은 흘랑따야 널서리, MF방문

흘랑따야에 방문해 우리가 그 동안 해왔던 활동을 함께 지켜보셨다. MF로 빗자루를 만드는 아저씨의 집을 방문했다. 그리고 항상 들리던 Y스텝인 윈니 아줌마의 집에서 맛있는 간식을 먹었다.



11월4일 밤 루나 간사님, 김종찬 과장님 도착

그날 밤 정신 없었던 양곤 공항에서의 상황

간사님이 양곤에 도착하시는 시간 10시 pm!

우리는 일찍이 박장동 총장님과 함께 간사님을 맞이하러 갔다. 양곤 공항에 9시가 약간 넘어 도착했다.

산드라 간사님은 출국 게이트 안에 들어가 루나 간사님과 김종찬 과장님을 기다리시고 아피들은 밖에서 서성거리는데...

응...?? 11시10분으로 간사님께서 타신 비행기가 연착되었다.

당시 시간 9시 50분. 한 시간이 넘는 시간을 아무것도 없는(밤 9시가 되면 가게 문을 닫는다.)

양곤 공항에서 간사님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피곤에 찌든 아피들과 산드라 간사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그때! 다시 착륙시간이 바뀌고 간사님은 제 시간에 양곤 공항에 무사히 도착하셨다.

축으로 우리를 반겨주시는 간사님과 아피들의 눈물겨운 상봉!



01 아피클럽

02 중갑격려방문

03 YMCA, YWCA

04 Shan State

05 특별한 일상



01 아띠클럽

02 중간격려방문

03 YMCA, YWCA

04 Shan State

05 특별한 일상



11월5일 중간평가 발표

중간평가 발표는 10시였다.
우리는 전날 새벽 까지 준비를 하고,
그날 아침까지 정신 없이 대본을 만들고 PPT정리를 했다.
결국 10시가 조금 넘어서 발표가 시작 (여기서 딱 드러난 준비성 ..ㅠㅠ)

정신 없이 중간평가가 진행되고 마지막 질문시간.
산드라 감사님께서 물었다.
"미얀마에서 5개월을 보내고 한국에 무엇을 가져갈 생각이니?"
우리는 오래 고민했다.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01 아띠클럽

02 중간격려방문

03 YMCA, YWCA

04 Shan State

05 특별한 일상

중간평가가 끝이 나고 그날 밤 감사님과 마주앉았다.

"왜 그때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가져 가야 할지..."

"야, 가져갈게 얼마나 많아! 차라리 파나카(미얀마에 자주 마르는 썬크림) 10개를 사간다고 하지. 소감 말했을 때 너무 추상적인 말들을 많이 해서 인문이 들더라. 너희들이 진심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건지. 아무리 형식적인 발표라고 해도 진정성은 드러나거든. 그런데 너희들은 거창한 말들을 찾아 멋있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이 단어를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숨기는 건지 모르겠어."

"사실 지금 중간평가에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나요."

"그게 진심이 아니라서 그런 거야. 진심으로 고민해서 나온 말이라면 당연히 기억하겠지."

- 라온아피는 대단한 게 아니다. 지루한 일상 그 자체도 라온아피! 라온아피의 영향은 큰 게 아니다.
- 아이들 손 씻기를 알려 주는 것도 라온아피의 교육이 될 수 있으며, 일회용 종이컵을 쓰는 사람들에게 머그컵을 선물 해주는 것도 라온아피의 350ppm이 될 수 있다.

11월6-7일 감사님과 의 고민 나눔 피드백 시간

10월의 뻘뻘한 일정으로 지쳐있던 미얀마팀의 단비 같았던 고민 나눔 시간!
그 후, 아피들의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민준- 우리가 활동하는 마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에만 너무 집착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 사소하게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의 자만심,이기심으로, 당장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 바로 눈에 보이는 방법만 원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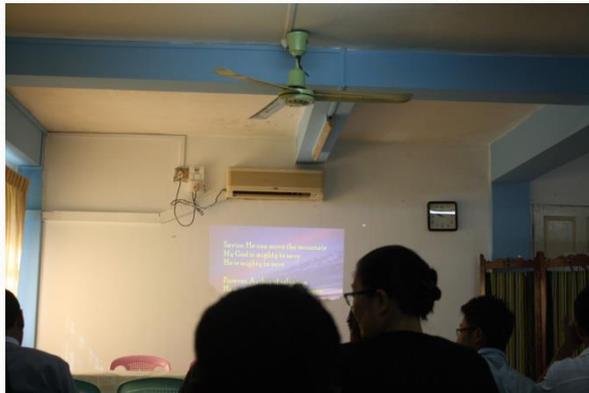
건희- 감사님과 스케줄에 대한 고민을 많이 나누었어. 사이트를 줄이고 싶지만, 이미 마음을 나눈 사람들 때문에 사이트를 줄일 수 없게 된 현실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 우리 팀이 라온아피에서 '즐거라.'는 표현을 잘 못 이해하지 않았나 싶어.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일에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게 되었어. 사이트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

다영- 계획과 준비 속에서 지치고 있는 내 자신이 싫었어. 일처럼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진심이 아니게 될까 봐 무서웠어. 절대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 하지만 갈수록 지쳐갔어. 감사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감사님들이 준비하고 계획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하셨어. 그렇게 오랜 기간 힘들게 준비하지만, 아피들과 함께할 때는 언제나 진심이였고, 행복하다고 하셨어.

재현- 중간평가 때부터 이어진 컨디션 난조로 정말 너무 힘들었어. 내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잠을 자고, 피곤해하고 있더라.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난 영향인 것 같아. 지난 두 달 동안, 내가 평소에 만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을 만났어. 내 스스로에게는 도전이었고, 혼란스러운 상황들 때문에 많이 지쳐갔어.

YMCA/YWCA World week of Prayer

- 01 아띠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우리 라온아띠 14기 양곤팀은 총선 후 여파에 대한 걱정으로 일주일 동안 감금조치(?)를 당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 을 줄 알았지만 마침 YMCA/YWCA World Week 였다!

2015년 11월 둘째주

YMCA/YWCA world week of Prayer

- 01 아띠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또한, 찬송가도 매일 불렀는데 아띠들이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싶다고 산드라 간사님에게 요청하였다. 그 결과, 전날 연습을 거쳐 함께 National YMCA, Yangon YMCA 스태프들과 불렀다. 부듯했지만 사진이 없어서 아쉽다 ㅠ..ㅠ

YMCA/YWCA world week of Prayer

- 01 아띠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각 단체에서 준비한 맛있는 음식이 준비 되었다. 전날, Myanmar YWCA의 식사가 아주 맛있었다는 피드백을 듣고 산드라 감사님은 전날, 비장의 무기 미얀마 파스타를 준비했다. 우리의 영양을 담당하는 누누트웨도 처음 하는 것이었고 재료들이 하나같이 위험부담이 컸지만 무사히(?) 식사가 끝났고 몇몇 아띠들도 맛있게 먹었다.

2015년 11월 둘째주

11월, 샨 스테이트로의 외출

01 아띠클럽

02 중간격려방문

03 YMCA, YWCA

04 Shan State

05 특별한 일상

Chapter 1. 인레 호수 여행

Chapter 2. Kalaw festival

Chapter 3. 우리 마을, Pain Ne Pin을 소개합니다

- 01 아띠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아띠들이 가는 샨 스테이트는 어떤 곳일까?!

미얀마 내에는 14개의 주가 있다. 그 중 샨 주는 가장 넓은 주로 미얀마 전체 국토에 1/4를 차지 한다. 넓은 만큼 가장 많은 지역과 마을이 있다. 무려 33개의 종족이 살고 있다.

여기서 잠깐!

미얀마의 종족 구성

1. 버마족(중남부 저지대, 중앙 평원지역 거주) 68%
 2. 샨족 9%
 3. 꺼잉족 7%
 4. 라카인족 4%
 5. 몬족 2%
- 그 밖에 꺼야, 까친, 친 등 총 135개의 종족



출발하기에 앞서.....

- 01 아띠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11월 26일,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양곤팀이 Shan state로 떠나게 되었다. Shan state의 아주 작은 마을 Pane Ne Pin에서 한 달 동안의 홈 스테이를 하기 위해서였다.

중간평가 직후로 예정되어있었던 Shan state로의 '외출'은, 미얀마의 총선과 비자 문제 그리고 팀원들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몇 주나 늦춰졌기 때문에, 떠난다는 사실만으로도 팀원 모두가 매우 기뻐했다.



버스로 약 12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걱정을 했지만, 앞 좌석에 모니터까지 달린 비행기 못지 않은 VVIP 버스에 모두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게 양곤 팀원들은 기대와 설렘을 안고 Shan state로 떠나게 되었다.

Chapter 1. 인레호수 여행

01 아띠클럽

02 중갑격려방문

03 YMCA, YWCA

04 Shan State

05 특별한 일상

Pane Ne Pin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산드라 간사님과 함께 미얀마의 유명 관광지인 Inle 호수를 하루 동안 관광하게 되었다.

11월 27일 오전 6시쯤.

우리는 인레 호수에 도착하였다. 파냥 총장님과 친분이 있다는 Four sisters 호텔에 짐을 풀고, 두꺼운 옷으로 갈아 입은 후, 인레 호수 관광을 시작했다.

작은 배 하나에 산드라 간사님과, 할머니, 솔리와 라온아띠 4명까지 모두 7명이 함께 타고, 인레 호수를 둘러보았다.

미얀마에서 제일 큰 도시 양곤, 그 안에서도 가장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 살던 양곤팀은, 오랜만에 느끼는 맑은 공기와 바람에 행복함을 감추지 못했다.

인레호수 gallery



Chapter 2. Kalaw Festival

- 01 아띠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우리가 shan state에 도착하고 이틀 뒤, kalaw에서는 일년에 한 번 있는 festival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각 마을을 대표하는 여러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축제였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준비한 다양한 춤과 노래를 보여주는 행진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에 넓은 운동장에서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하나되어 함께 춤추고 노래하였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아띠들도 하나 둘 춤추고 노래하며 축제를 즐겼다고 한다.

마지막을 장식한, 불꽃 퍼포먼스는 한국에서 보지 못한 신개념 퍼포먼스로 아띠들을 놀라게 했는데, 불꽃이 하늘이 아닌 관중을 향해 계속 날아와, 양곤 팀원들은 두려움에 떨었다는.....



- 01 아띠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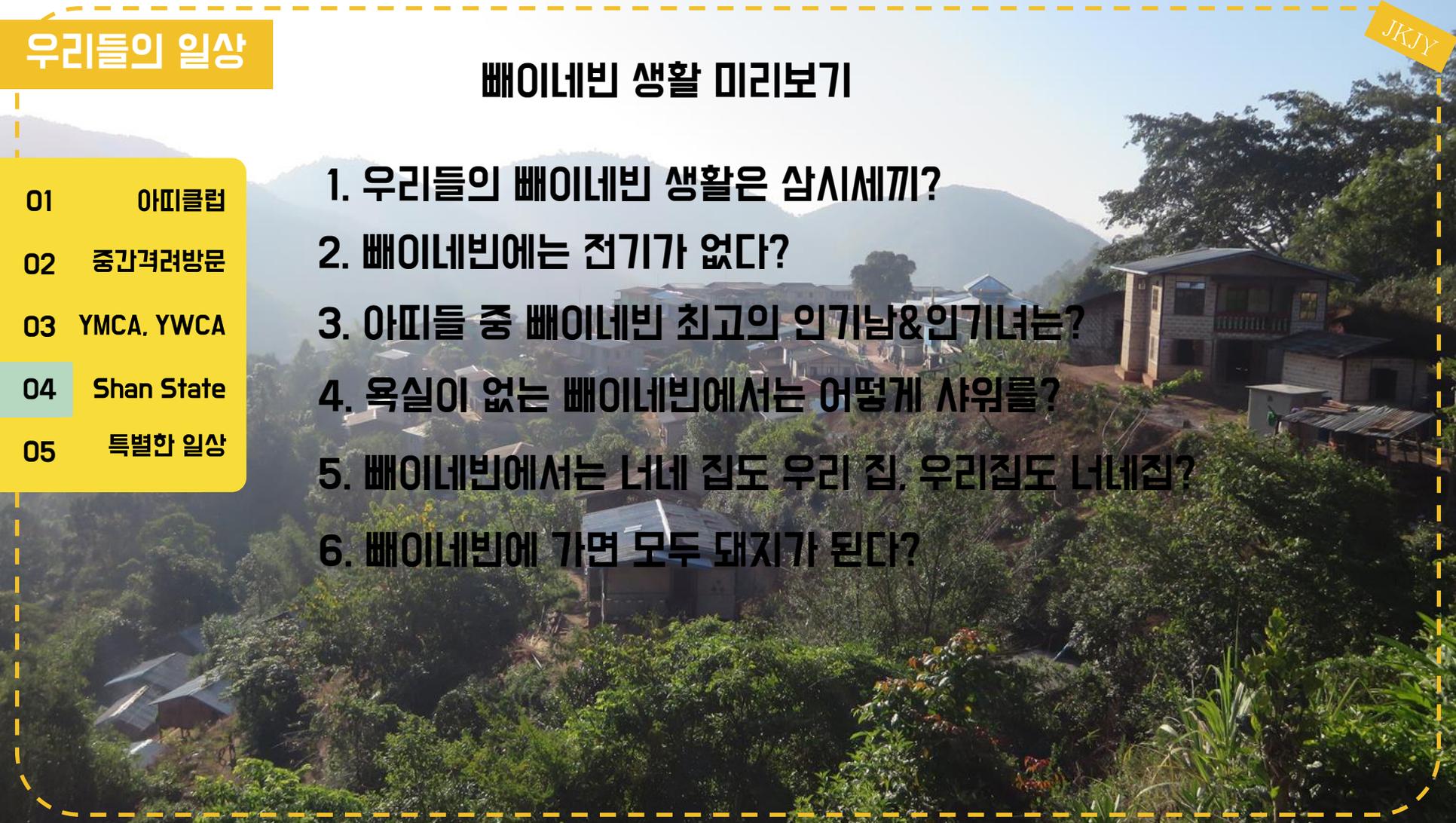
Kalaw festival gallery



배이네빈 생활 미리보기

- 01 아띠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1. 우리들의 배이네빈 생활은 삼시세끼?
2. 배이네빈에는 전기가 없다?
3. 아띠들 중 배이네빈 최고의 인기남&인기녀는?
4. 욕실이 없는 배이네빈에서는 어떻게 샤워를?
5. 배이네빈에서는 너네 집도 우리 집, 우리집도 너네집?
6. 배이네빈에 가면 모두 돼지가 된다?



미리 보는 빼이네빈 갤러리

- 01 아띠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배이네빈 인물 미리보기

요주의 인물 리스트

- 01 아띠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홀라웨이(5세)
키워드 : 김민준의 짝사랑



아이제이(17세)
키워드 : 한국어 열공
뚝뚝이



아늘(13세)
키워드 : 관종



렘웨 선생님(24세)
키워드 : 실연의 아픔,
학 못접기의 달인



맹 구 (맹구)
키워드 : 성별 논란



옆집 선생님. 제이(24세)
키워드 : 심봉사



아토웅(10세)
키워드 : 평지 민다!



널서리 선생님 모(30세)
키워드 : 한국드라마 마니아



예(3세)
키워드 : 건희lover



국수집 아줌마
키워드 : 산또우

배이네빈 인물 미리보기

요주의 인물 리스트

01 아띠클럽

02 중간격려방문

03 YMCA, YWCA

04 Shan State

05 특별한 일상



이건희(91년생)
볼을 다스리는 자. 요리왕
특이사항: 91년생 학 못 접기 모임 소속



이재현(92년생)
배이네빈 최초. 맥주 마시는 여자
키워드: 배이네빈 미친 대식가



솔리(93년생)
이다영과 영혼의 쌍둥이
키워드: 상처 제조기
특이사항: 본인 휴대폰 번기에 투하
배이네빈 의자왕



이다영(94년생)
솔리와 영혼의 쌍둥이
키워드: 존짜바, 슬픔이
특이사항: 머느리감 1순위
-호빗발, 화장실, 왓포음, 편애 여왕
이외 다수 이야깃거리 보유



김민준(89년생)
할리갈리 보급자(할리갈리 중독자 다수 생성)
특이사항: 미안마 가요 미친 중독자.
한계를 뛰어넘는 찌는 식사량



쿠이(10세)
키워드: 똑똑이 애기.
이다영의 엄청난 편애



맥주 마시는 여자를 태어나서 처음 본 청소년(15세)
특이사항: 아이제이 동생
자주하는 한국어:
(이재현 가리키며) 너. 여자. 아니야. 너 남자 맞아.
(이재현 보면서) 나. 너. 싫어.



옆방 매점 아들
키워드: 인간 알람 (새벽 5시)
특이사항: 널서리에서는 선비로 변신



택 아웅(4세)
키워드: 귀염둥이

Bible Contest

- 01 아피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YMCA, YWCA Warship이 끝나고 산드라 간사님은 내일 Bible Contest가 있는데 참석하고 싶냐고 물어보셨다. 뭐진 잘 몰랐지만 감금으로 할게 없던 우리는 냉큼 참석 의사를 표시했다. 알고 보니 Bible Contest는 Elementary School 학생들이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노래와 춤으로 표현하는 대회였다. 준비된 상만큼 많은 학생들이形形色색의 복장으로 참석하였다.

2015년 11월 14일

Bible Contest

- 01 아띠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Bible Contest

- 01 아띠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이사장님과 목사님들은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눠 1,2,3등 상을 차례로 시상하셨다. 상을 받은 친구들은 좋아했지만 못 받은 팀은 우는 친구들도 있어 마음이 아팠다. 벌써부터 경쟁의 아픔과 쓴맛을 보는 아이들이 안쓰러웠다. 연습한 만큼 모두가 성장을 느꼈으면 좋겠다.

2015년 11월 14일

- 01 아띠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아띠들이 깜짝 놀란 황재원 단원의 닳은 꼴
닳았나요??ㅋㅋ

- 01 아띠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인세인 카렌 바자

양곤 Y 선생님 피피의 권유로
우리는 인세인에서 열리는 카렌
바자에 가게 되었다.



1년에 한번 열리는 이 바자회는
학교 내에서 주말 휴교를 틈타
카렌족들이 함께 한다. 많은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과 물건을 파는 것은
물론, 게임까지 진행하고 있었다.
이번에 Y에서는 크리스마스 장식들과
예쁜 액세서리들을 팔았다.

2015년 11월 14일

- 01 아띠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인세인 카렌 바자

도착하자마자 인세인 근처에 있던 Y스텝의 집에서 신나게 모험가 세 그릇을 비우고.



저녁 8시까지 스텝들과 모두 함께 열심히 팔아서 29만짜이라는 엄청난 판매금액을 달성했다. 뿌듯한 마음으로 스텝들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안에서조차 여전히 지치지 않은 YMCA의 에너지!!

사진으로 느껴지는 정신 없음..ㅋ

뽀누와 데이트

- 01 아띠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Shan State로 가기 전, 이번 달 초부터 시험기간이라 못 본 뽀누의 초대와 호의(?)로 그녀의 대학교에 갈 수 있었다. 시험이 아니라서 학교에 학생들은 많이 없었지만 미얀마의 대학교 교실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라 신기했다. 시설은 생각보다 안 좋았지만 경치만큼은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보다 좋았다. 대학 식당가는 우리가 주로 보던 시내 싸잉들의 행렬이었던 게 기억에 남는다.



- 01 아띠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뽀누와 데이트



뽀누의 추천으로 같은 판린에 있는 대학교와 가까운 유명한 예(물) 파고다 또한 가게 되었다. 인공적으로 섬을 만들어 파고다를 지은 것을 보고 매우 신기했다. 외국인은 없었지만 현지인들이 아주 많아 국내의 유명한 파고다 같았다. 여기서 또한 불교에서 소중히 여기는 물고기떼(이름이 기억 안남) 들에게 많은 간식 또한 주었다.



바람을 느끼며 자는 중..

우리들의 일상

- 01 아피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이번 주 아피클럽 일정에 있던 민속촌은 판린에 있는 줄 몰랐는데 뽀누가 민속촌을 가자고 해서 가보니 대학교와 아주 가까웠다. 덕분에 견학 겸 한국에서도 못 타본 전기 자전거까지 탈 수 있어 민속촌을 다 돌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뽀누와 데이트



의자를 느끼며 자는 중..

2015년 11월 19일

- 01 아띠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레게 콘서트



총선에서 승리한 NLD의 수장
아웅산 수치여사의 오른팔

너희 레게 좋아하니? 갑작스럽게 산드라 간사님이 물어보았다.
네. 좋아해요. 우리는 대답했다.

그렇게 그 날 저녁 우리는 미얀마 레게 대부의 콘서트를 산드라간사님.
브라운과 VVIP 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 덕분에 이름은 모르지만
많은 연예인과 심지어 정치인까지 볼 수 있었다.
콘서트를 보고 우리는 밤새 흥얼거렸다. 찻짜바~

2015년 11월 20일

- 01 아띠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꼬쉐, 안링 형과 저녁식사

안링 형은 한국에서 4년 반 동안 일하고 돌아왔다. 우리는 형이 오기 전부터 꼬쉐 형에게 동생이 있는데 천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곧 돌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하고 있었다. 만난 형은 한국말도 잘하고 쩌들했다.

거기다 미뚜의 남자친구라는 이야기에 놀라고 한국 가기 얼마 전 사귀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다. 지금까지 꼬쉐형, 형의 부인 오피스 스태프 마 수수지, 미뚜는 가족처럼 지낸다.

- 01 아띠클럽
- 02 중간격려방문
- 03 YMCA, YWCA
- 04 Shan State
- 05 특별한 일상



꼬쉬, 안링 형과 저녁식사



형은 고향인 Kaya State로 돌아가기 전, 우리에게 저녁식사에 초대하였다. 미뚝은 아쉽게 Duty라 참석을 못했지만, 우리는 세꼬란에서 맛있는 숯불 고기들과 음식, 생맥주 미얀마 비어를 배터지게 먹을 수 있었다. 형 보고 싶어요~~ 빨리 돌아와요

2015년 11월 22일



YMCA

YMCA

လျှောက်လုပ်ရန်အတွက်
သင်တန်းကျောင်းသို့
၂၆၀၇၄ ၀၉ ၅၀၄၉၁
၀၉ ၇၃၂၄၄၃၄၄
ယအပတ်တော်
ကျောင်း

2
우리들의 소개



바쁜 일상의 후폭풍

10월의 바쁜 일상과 중간평가 후에 긴장이 풀리면서 아피들의 건강은 급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한다.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아팠던 것인지 그 진실을 파헤쳐보자.



#재현# 시체

11월12일 목이 부어 오르기 시작

11월13일 새벽 3시

(당시 민준과 건희는 새벽까지
군대 이야기로 정신 없이 옆방
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음.)

재현은 아픈 몸을 이끌고 약을 가지러 문을 두들김.)

새벽4시 약을 먹고 잠

새벽 5시 열이 심해짐.

11월 14일 열이 더 심해짐.

양쪽 편도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목이 부어 오름.

체온계 측정 결과 38도 39를 맴 돌

결국 간사님과 함께 병원에 감.

11월15일 여전히 하루 종일 숙면. 시체

#다영 #호빗 발



11월10일 모기 물린 곳을 긁다 피가 났음.
11월11일 모기 물린 곳을 긁다 피가 난 곳 계속 긁음
+민준 오빠와 함께 하루 종일 밖을 돌아다니다
아직 발이 적응 못한 새 쪼리에 계속 살이
굵히면서 상처가 남.
11월12일 상처가 심해짐. 별것 아닌 줄 알고 방치

+오빠들의 끊임없는 잔소리
" 다영아.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발 부어 오르잖아"

11월14일 발이 부어 오르기 시작.
그러나 기필코 Y바자회를 가겠다고 나섬.

+ 끊임없는 언니의 잔소리
" 다영아. 너 바자회 가면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데 다음날 더 심해진다."

11월15일 언니 말대로 진짜 심해짐. 호빗 발이 됨.
소독약이 없어 손 소독제를 상처에 뿌림.

11월16일 상처가 더 커짐.
발의 형태가 사라질 정도로 부음.
결국 산드라 간사님의 조치로 병원에 감

11월17일- 아침마다 부은 발을 치료하기 위해 Y간호사님께서
오심.-> 못 걸어 다님.

건강이 최고!!

내가 살아본 미얀마는 ?

양곤은 ?

By YOUNG



1. 찻집에 가면 지키지도 않은 여러 종류의 빵들을 상위에 올려준다?

음식점보다 찻집이 더 많은 양곤에서 러펫예를 접할 기회가 많다. 찻집에서 러펫예를 시켰는데, 접시의 한 가득 빵들을 상위에 놓아준다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두면 된다. 먹고 싶다면 먹은 만큼만 계산해준다.



2. 부처님 사진이 있는 빗물 담긴 항아리 물을 마신다?

길거리에 물이 담긴 항아리를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 작은 상자 안에 부처님의 사진과 빗물이 담긴 항아리가 있다. 길을 지나가다 목이 마르면 사람들은 항아리 물을 퍼 마신다.



물고기 밥 주는 아줌마



3. 미얀마 사람들은 비둘기 밥을 사서 손수 준다?

양곤에서 비둘기 밥을 파는 아줌마들이 있다. 사람들은 그 밥을 사서 비둘기에게 뿌려준다. 지금 생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사후 복을 누린다고 생각해 동물들에게 음식을 준다. 그래서 비둘기와 개들의 천국!

4. 파고다 안을 내 집처럼?

미얀마에는 파고다가 많다. 그 안에서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과 공원처럼 내 집처럼 편안히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5. 태어난 월일보다 요일을 더 중요시 여긴다?

미얀마에는 요일을 상징하는 동물들이 각각 존재한다. 그것에 따라 이름을 짓고 요일의 순서도 사람을 접치는 중요한 숫자가 된다.

월- 호랑이
화- 사자
수- 코끼리

목- 쥐
금- 두더지
토- 용

일-가루다



6. 잠옷을 입고 다닌다?

미얀마 사람들은 대체로 아래위로 똑같은 색의 옷을 맞춰 입는 패션을 좋아한다. 그중 아래위로 똑같은 색의 잠옷이나 캐릭터 잠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거리에 서 볼 수 있다.



7. 집안 벽 곳곳에 사진을 많이 붙여놓는다.



8. 버스 차창에 부처님 사진과 함께 쪽 꽃을 걸어둔다.



9. 가게나 찻집에 가면 항상 축구채널이 틀어져있다?

미얀마 사람들은 축구를 아주 좋아한다. 밤 9시만 넘어서면 거리가 한산해 지는데, 술집이나 찻집은 축구를 보는 사람들로 가득 찬다. Y안에서도 새벽까지 축구를 챙겨보는 광들이 있다고.. 누군지는 비밀..



10. 도로 위 택시가 반?

양곤에는 예상외로 택시가 아주 많다. 가격은 출발 전 미리 흥정해야 한다.



11. 버스 앞 좌석은 좋은 자리?

버스에 노약자석은 따로 없지만 스님들이나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면 앞 좌석을 양보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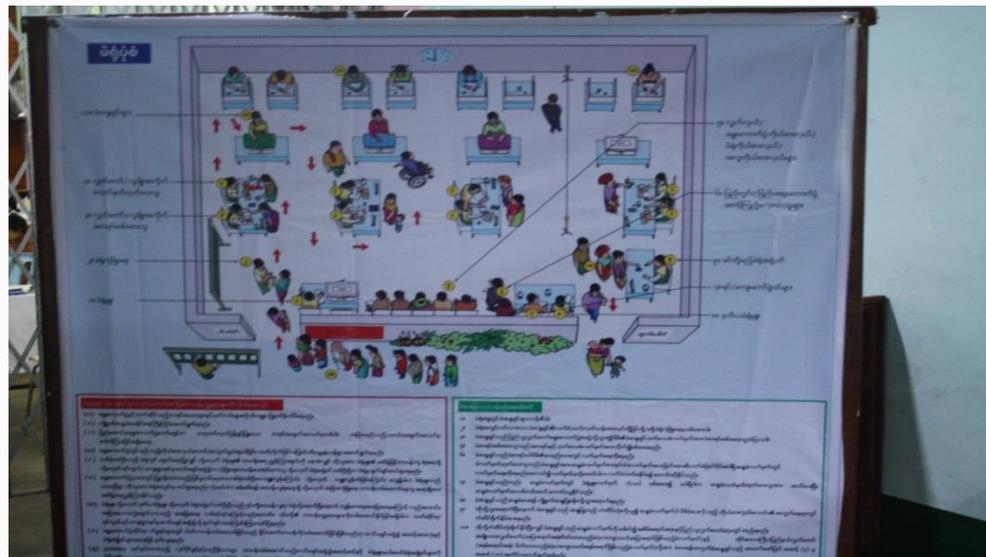


12. 육교는 휴식처이다?

육교에서 사람들이 앉아 이야기를 하거나 잠시 쉬어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Myanmar Election 2015

우리 라온아띠 14기 양곤팀은 공교롭게도 현지활동 중 현 미얀마 정세에서 중요한 시점이 될 총선의 시기와 맞물리게 되었다.
행운인지 불행인지 아띠들은 미얀마의 정치 폭풍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래서 몸소 체험하고 느낀 진정한 민주화의 열기와 현지의 분위기를 전달해보고자 이런 페이지를 마련했다.



Myanmar Election 2015



아이들이 도착한 9월부터 이렇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깃발을 달고 다니는 택시나 싸이카가 아주 많았다. 그 중 대부분이 NLD였다. 아이들이 활동하는 마 오골라바에서는 마을 입구 부터 NLD 깃발이 펼쳐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당과 야당에만 관심이 있어 NLD, USDP만 알고 있지만 마을 곳곳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외의 다수의 정당들도 존재하고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마을 곳곳에 있는 NLD 파티 지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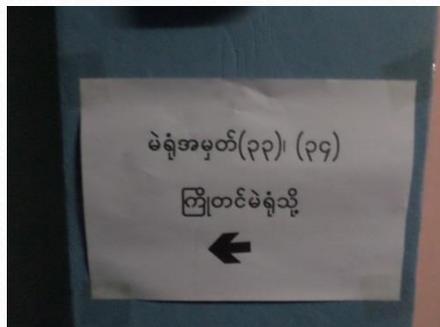
Myanmar Election 2015



공교롭게도 Yangon YMCA 또한 선거의 투표소로 지정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얀마는 파고다도 투표소로 쓴다. 생각보다 많은 참관인들과 경찰들도 함께 했다.



투표 후, 수작업으로 하나씩 표를 개표하고 있다.



우리 Yangon YMCA는 34번 투표소

Myanmar Election 2015

총선의 결과는 NLD의 완승이었다. 상원과 하원에서 둘 다 과반의 의석을 얻어 집권당이었던 USDP의 의석을 거의 다 석권하였다. 그 결과, 비로소 NLD의 단독집권이 가능해졌다. 주위의 분위기를 보고 예상은 했지만 미얀마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총선의 승리에 외국인인 우리는 축하 반, 우려 반의 기분을 느꼈다.

총선 후, 산드라 간사님은 과거 군부의 악덕 행위와 갖가지 폭력사태를 이야기하시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우리에게 YMCA 감금조치를 시행하였지만,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양곤 다운타운에서는 아무런 사태 없이 조용히 지내고 샵 스테이트로 출발할 수 있었다.

Myanmar's election, results and transition

Myanmar voted on Sunday in the first free national election for 25 years. More than 6,000 candidates competed for 1,171 seats in the national parliament and local assemblies.

The party of opposition leader Aung San Suu Kyi was on course for a landslide victory, but it was unclear if that would be enough to deliver a majority in parliament that would allow her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to control the presidency.

The period before a new president takes power at the end of March is likely to be one of tension and uncertainty, as Suu Kyi negotiates how to share power with the still-dominant military.

Supporters of Myanmar opposition leader Aung San Suu Kyi's party watch official results on a giant screen outside the party headquarters in Yangon on Monday, Reuters



Results

The Union Electoral Commission (UEC) plans to announce preliminary nationwide results on November 10, and final results no later than two weeks after the vote.

The first batch of results announced on Monday returned 12 out of 12 seats in the lower house to the NLD, all in Yangon.

Results from the urban centres, the support bases for the NLD, were expected to come more quickly than those from the rural support base of the ruling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

Reservation for military

The 2008 constitution, drafted by the junta that handed power to President Thein Sein, reserves a quarter of all seats in parliament for the military.

That means that only 75% of the seats in parliament were contested in the polls.

First batch of results	Seats in parliament			
12/12 seats in the lower house to the NLD	Lower House 440	Upper House 224	14 legislatures for regions & states of Myanmar	
	Reserved for military 110	Reserved for military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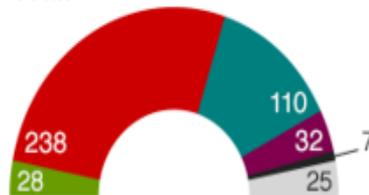
Myanmar election results 2015

■ USDP ■ NLD ■ Army ■ Others ■ Cancelled seats ■ Undeclared

Upper House
224 se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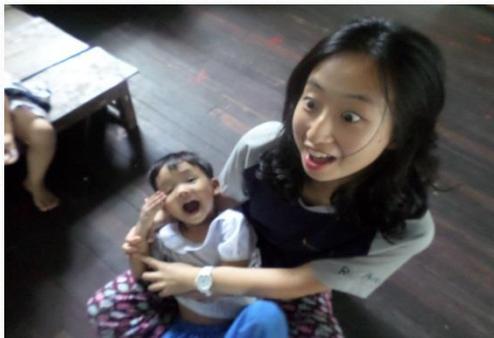


Lower House
440 seats



본 페이지는 11월 아름다운 추억과 생활을
상기시키기 위한 페이지로
개인 이미지 훼손과 같은
폭력적인 요소는 일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멋다한 사진전



귀여운 포와잉 을 닮은 산드라 간사님



멋다운 사진전



멋다한 사진전



멋다운 사진전





3

개인 에세이

나의 11월은 너무 피곤했고, 힘들었고, 아팠다.

항상 피곤했었고, 몸이 점점 힘들어하더니,
결국은 열이 많이 나고 병원까지 가게 되었다.

양곤에 와서 처음으로,
그냥 도망가고 싶다고 생각했고,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의 11월도 행복했다-

이 모든 과정이, 이 순간 하나하나가,
그래도 나는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행복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급박히 준비했던 중간평가가 끝난 후 다시 힘을 얻었고 그 후엔 그렇게 가고 싶었던 산 스테이트 일정이 확정이 되었다. 한동안 하루하루 실 틈 없이 활동했던 것들을 잠시 놓아두고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렇게 쉬어도 될까 라고 생각할 만큼 라온아피에 대한 생각을 놓고 산 것 같다. 11월. 나는 나태했지만 그 시간들 덕분에 다시 충전할 수 있던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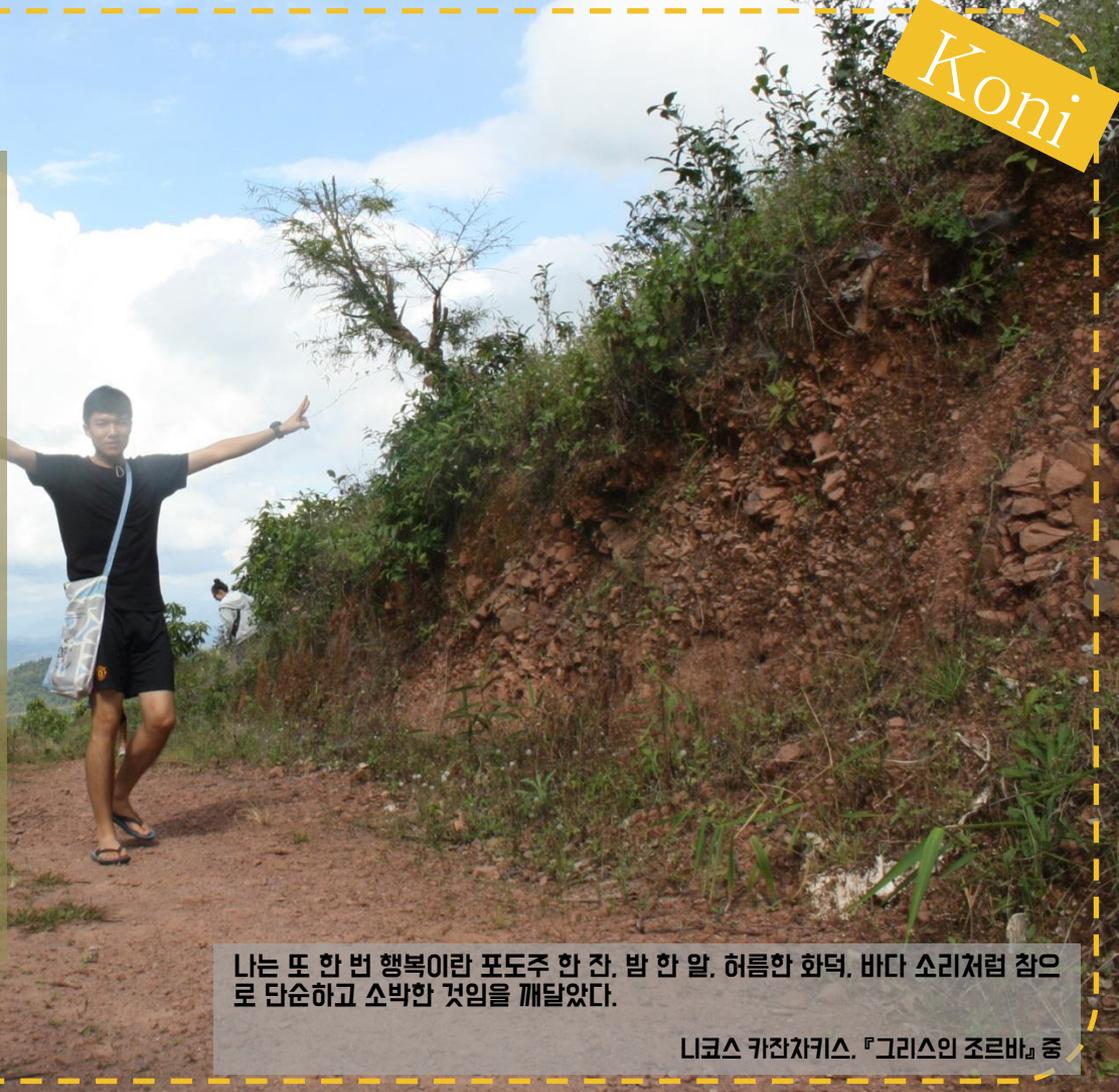
에세이를 쓰는 지금도 점점 미얀마에서의 나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가슴에 와 닿아 슬프다. 하지만 바람같이 지나가는 이 순간순간을 열심히 붙잡으며 살아야겠다.



2015년 11월,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미얀마의 약 20년만의 총선에 미얀마 전체가 조금은 들뜬 분위기였다. 10월 중순부터 온 거리마다 포스터가 붙었고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당의 (대부분이 NLD였다) 스티커를 차나 옷에 붙이고 다녔다.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바라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현 정부가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할까 걱정스러웠지만 선거는 (적어도 표면적으로 내가 봤을 땐) 매우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 각 투표소마다 경찰 교육을 받은 민간인들이 진행을 감시했고 다수의 참관인들이 선거 진행과 개표를 함께 지켜보았다. 총선을 앞두고는 밖에서 나는 폭죽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고 총선 뒤에는 신문을 챙겨보면서 상황을 지켜보았지만 우려와 달리 매우 평화롭게 11월은 흘러갔다.



총선 이후로 산드라 간사님이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흘랑 따라. 마오플라바 등 원거리 활동지에는 가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양곤 YMCA와 YWCA. 미얀마 YMCA에서 진행된 기도주간에 참석하였다. 가끔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이 시간을 빼이네빈 (홈스테이 마을)에 가기 위한 충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쉬었다. 다영이와 재현이도 많이 아팠기 때문에 쉬게 된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기도 했다. 그렇게 홈스테이가 계속 미뤄지나 싶었을 때 산드라 간사님은 언제나처럼 매우 갑작스레 3일 후 산 스테이트 행을 알려주셨고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한 채 우리는 산으로 향했다. 양곤에 매우 지친 탓이었을까 아니면 질린 탓이었을까 또는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었을까. 나에게 산골 마을 행은 13시간의 버스여행에서 잠을 거의 못 잘 만큼 설레는 일이었다. 그리고 만난 광대한 인레 호수와 드디어 도착한 빼이네빈은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아름다웠다. 이 아름다운 마을에서 오렌지를 따고 차익을 따고 밭을 갈고, 길을 걷고 마을과 산들이 바라다보이는 산 중턱에 앉아 있다가 작은 꽃들과 지는 해를 보며 산을 내려온다. 미얀마 산골마을에서의 나는 아마 태어나서 가장 적은 자극을 받으며 아주 작은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이 마을에서 신기하게도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알아가고 있다.



나는 또 한번 행복이란 포도주 한 잔, 밤 한 알, 허름한 화덕, 바다 소리처럼 참으로 단순하고 소박한 것임을 깨달았다.

#착각

나는 내가 강한 줄 알았다.

나는 내가 잘할 줄 알았다.

나는 내가 남을 배려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만 남을 이해하는 게 힘들다 생각했다.

나는 강하지 않았다. 나는 자주 울었고, 잘 참지 못하고 유지했다.

나는 실수가 많고, 시작한 일의 마무리가 깨끗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 열정에 넘쳐 무리한 다음날 꼭 몸이 아파 주변에 피해를 줬다.

나 만큼 남도 나를 각자의 방식으로 배려해준다.

나 만큼 남도 나를 이해하는 게 힘들다.

착각에서 깨어나니, 나를 지탱해주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라운아피 에세이

우리 모두 다른 말들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오래 머무는 사람들

여행을 많이 다녀본 재현언니는 여섯 번 방문한 방콕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완전한 관광지, 외국인들의 천국, 쇼핑의 거리

돈이 있어도 없어도 놀 수 있는 곳이 천지라고 했다.

그렇게 한참 방콕에 대해 이야기 하다 언니가 말했다.

“여행자들은 책임이 없어,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리면 그만이고, 머물다 떠나면 모든 게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관광으로 돈을 버는 나라들은 문제가 많지.”

나는 미얀마에 5개월을 살다 간다. 현지인이 될 수 없고 그렇다고 여행자도 아니다. 잠깐 와서 선물만 주고 가는 산타도 아니고 딱히 의료기술도 특출한 지식도 없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미얀마에 5개월을 살다가는 라온아피다.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오래 머물다 보면 사소한 것에 신경이 쓰이고 질문이 생긴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함께 버리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인데 왜 이렇게 이곳에는 만연한 것일까 고민하게 된다. 에피 선생님께서 미얀마의 교육은 엉망이고 정부도 싫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마음이 답답해지고, 은색 통을 내밀며 나에게 돈을 달라는 아이의 가족들이 궁금해지고, 이곳의 아름다운 파고다 보다 자주 가는 과일가게의 주인 아주마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실 때 나는 더 감동한다.

JKJY

우리 마을에서 12월에 만나요~!

여기가 우리 마을~